

# 신동주-신동빈 재회... 부친상, 화해 계기 되나

신격호 명예회장 빈소 조문객 이어져 신동주·신동빈, 임종 지키고 함께 상주 이재용·이재현 등 재계 조문행렬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형제의 난'을 겪으면서 반목했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얼굴을 마주했다. 두 형제는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진 신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며 장례 이틀째인 20일에도 조문객을 맞았다. 전날 부친의 임종도 함께 지켰다고 한다.

신 명예회장이 별세한 당일 저녁에는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 일가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차례(장례를 시작하고 고인을 모시는 의식)를 함께 치렀다. 2018년 10월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 2심 선고 때 이후로 개인적으로도, 공식 석상에서도 만난 일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두 형제의 앙금이 조금씩 풀어지지 않았느냐는 관측까지 조심스럽게 나온다. 롯데 일가가 오랜만에 모인 데다 장례를 치르려면 형제간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일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롯데 고위 관계자는 "당초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이 그룹장을 반대했지만 신 회장 등 가족들의 뜻에 따라 그룹장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 ◆가족들 임종 지켜봐

신 명예회장은 지난해 6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서 소공동 롯데호텔로 거처를 옮긴 이후 건강이 악화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영양공급을 위한 케모포트(중심정맥관) 시술을 받고 퇴원했다가 같은 해 11월 한 차례 더 입원했다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8일만인 지난해 12월 18일 다시 영양공급을 위해 입원했다 한 달여만인 지난 세상을 떠났다.

중은 신 회장 형제를 비롯해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자녀들이 지켜봤다. 신 이사장은 부친의 병세가 악화된 전날부터 병상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출장 중이던 신동빈 회장은 신 명예회장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급히 귀국했다.

고인의 넷째 동생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 과 여동생 신정숙씨, 동생 신준호 농심 회장의 장남 신동원 부회장 등도 빈소를 지켰고 신준호 회장의 사위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카사위인 조용완 전 서울고법원장 등도 조문했다.

### ◆신격호 빈소 이틀째 조문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두 형제가 조문객을 맞았다.

재계 인사 중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부회장은 10여분 정도 빈소에 머물며 조문한 뒤 자리를 떴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도 일찍잡치 빈소를 찾았다. 최 전 회장은 신 명예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 씨의 장녀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한 이 회장은 지팡이를 짚기는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CJ그룹 관계자들의 도움 없이 1층 로비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2층 신 명예회장의 빈소로 이동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12일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한 바 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마트, 명절 특수는 옛말



### 김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설 명절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불과 몇 해 전만해도 명절 특수를 누리며 함박웃음을 지었을 대형마트들은 울상이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쇼핑의 중심이 옮겨가면서 대형마트는 외면받고 있으며, 의무휴업으로 인해 명절 특수는 동네 중소형 식자재마트에 빼앗기게 된 상황이다.

이에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SSG닷컴과 롯데닷컴에서 저렴한 선물세트와 명절 음식을 선보이며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온라인몰은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출 부진을 털어내기 위한 대형마트 업계의 노력은 상당하다.

하지만 최근 설 명절 의무휴업 변경으로 곤욕을 치렀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일에 영업할 수 없다.

대부분 지자체가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지만, 명절에는 의무휴업일이 매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해 명절 당일로 휴업일을 변경하곤 한다. 지난 추석의 경우, 명절 당일인 금요일이어서 일요일이나 수요일에 의무휴업일이 지정된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 날짜 변경으로 매출 증대의 효과를 봤다. 이번 설 명절에는 추가 휴업을 주장하는 노조들의 요구로 의무휴업이 변경됐다가 철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유통산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준대형 할인마트인 식자재마트는 365일 운영한다.

일각에서는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식자재마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수축산물 등 각종 식자재를 도소매하는 판매하는 이들 마트는 동네 슈퍼마켓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 최근에는 식자재뿐 아니라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상품까지 취급하고, 포인트 제도 도입 등 대형마트와 유사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의무휴업일(매월 공휴일 중 2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 등 규제에서도 빠져 있다.

/tree6834@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1월 21일 (음 12월 2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마음을 굳게 먹고 재산증여는 이후로. **48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하다. **60년생**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72년생** 자신을 등 돌로 삼아 앞으로 나가라. **84년생** 어린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는다.

**37년생** 눈앞의 실수를 챙기다 큰 이익을 놓친다. **49년생**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도 만족을 모른다. **61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건강에 신경. **73년생** 지나친 관심은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 **85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대화에 주의.

**38년생**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게 행동. **50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62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라. **74년생** 잔파로 상대에게 희망 고문을 하지 마라. **86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약간 허전하다.

**39년생** 황금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장식. **51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 **63년생** 끝없이 부모에게 의존 말고 길을 개척하라. **75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87년생**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40년생** 문서가 발동하니 매매도 생각해보라. **52년생** 오랜 친구 병문안 갈 일이 있다. **64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76년생** 모르는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88년생**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남들을 이롭게 한다.

**41년생** 버틸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는 것. **53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65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문제가 일시에 해결. **77년생** 독단적인 일 처리로 타인의 원망을 듣는다. **89년생** 레일을 벗어나지 말고 정도를 걸라라.

**42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 **54년생**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66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78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설득. **90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다리면 된다.

**43년생** 두드러도 열리지 않으면 애쓰지 마라. **55년생** 그럴듯하게 포장을 잘해야 한다. **67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79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조금 더 노력. **91년생** 상쾌함이 불어오니 일도 풀린다.

**44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극복하라. **56년생** 자신의 정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 **68년생**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만 생각. **80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서 가라. **92년생**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현실에 대처하라.

**45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이다. **57년생** 원하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나 복병을 조심. **69년생** 자식 때문에 근심이 많다. **81년생** 결론은 내 뜻대로 밀고 나간다. **93년생** 흘러간 세월을 그리워 말고 내일을 준비.

**46년생** 수호신이 보호하니 외로워 말라. **58년생** 오후에 교통사고 유의. **70년생** 통찬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82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94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쁜 마음으로.

**47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59년생** 민망한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맞서라. **71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83년생** 결심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95년생** 초심을 생각하고 노력하라.



## 김상회의의四季

### 자신의 그릇대로 산다

삼십 억의 재산을 모으고 싶은데 왜 나는 이십 억에서 늘어나지 않는 걸까.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은데 왜 나는 책을 내도 잘 팔리지 않을까. 상담하다 보면 다른, 비슷한 내용을 듣게 된다.

누구나 몇십억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세상을 감탄시키는 글솜씨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사람의 인생이다. 같은 재물운을 갖고 있어도 빌딩주인 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집 한 채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

조선시대 어떤 부부가 천석꾼이 되는 게 꿈이었다. 죽어라 일해서 몇백 석을 거두는 부자가 됐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석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답답했던 부부가 스님에게 여쭙니 스님의 말씀이 그랬다. "두 분의 사주를 보니 천 석 그릇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족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쌓기만 했던 곡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다. 부부는 자기 그릇을 받아들이면 행복이 시작됐다.

재물운이 이십 억이라면 거기에 만족하면 된다. 그만한 재물도 대단히 많은 것이다. 문창성의 운세가 있어 책을 낼 정도면 축복받은 재능이다. 세상에 잘 팔리는 책을 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자기 그릇에 만족하면 그것 자체로도 즐거운 인생이 된다. 문제는 그 그릇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릇을 탐낼 때 시작된다. 자책하고 비탄에 빠져서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아간다.

사람은 모두 주어진 그릇이 다르다. 자기 것이 아닌 그릇을 가지려 하면 고통만 늘어날 뿐이다. 자기 그릇의 크기를 잘 가늠하는 것 그릇을 인정하고 적절하게 맞춰 사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김상회의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의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   |   |   |  |   |   |   |
|---|---|---|---|--|---|---|---|
| 1 | 2 |   | 3 |  |   | 4 | 7 |
| 9 | 3 |   | 8 |  | 2 |   | 6 |
|   |   |   | 9 |  |   |   |   |
|   | 8 |   |   |  |   | 1 |   |
| 4 |   | 3 |   |  | 2 |   | 8 |
|   | 9 |   |   |  |   | 3 |   |
|   |   |   | 8 |  |   |   |   |
| 3 | 1 |   | 4 |  | 9 | 2 | 5 |
| 8 | 6 |   | 5 |  |   | 7 | 4 |

|   |   |   |  |   |   |   |   |   |
|---|---|---|--|---|---|---|---|---|
|   |   |   |  | 5 |   | 9 |   | 2 |
|   |   |   |  | 3 | 6 | 4 |   |   |
|   | 9 |   |  |   |   |   |   | 8 |
|   | 8 | 6 |  |   | 9 |   | 3 |   |
|   |   | 4 |  | 3 | 7 | 6 |   |   |
|   | 9 |   |  |   | 1 |   |   | 4 |
|   |   |   |  |   | 7 |   |   |   |
| 5 |   | 4 |  |   |   | 2 | 1 | 3 |

| 스도쿠 정답 |   |   |   |   |   |   |   |   |
|--------|---|---|---|---|---|---|---|---|
| 4      | 1 | 5 | 2 | 6 | 9 | 8 | 7 | 3 |
| 5      | 2 | 8 | 6 | 9 | 7 | 1 | 4 | 3 |
| 6      | 9 | 1 | 8 | 3 | 4 | 2 | 5 | 7 |
| 9      | 4 | 8 | 7 | 5 | 1 | 6 | 3 | 2 |
| 8      | 5 | 2 | 9 | 1 | 6 | 4 | 7 | 3 |
| 6      | 7 | 3 | 2 | 4 | 5 | 8 | 9 | 1 |
| 2      | 8 | 4 | 7 | 6 | 1 | 9 | 5 | 3 |
| 1      | 9 | 5 | 2 | 8 | 7 | 3 | 6 | 4 |
| 3      | 7 | 6 | 5 | 4 | 9 | 8 | 2 | 1 |

문제 제공= **보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             |                                 |
|-------------|---------------------------------|
|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 이장규                             |
| 인쇄인         | 중앙일보(주)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68호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72호     |